

시마노야마(島の山) 고분 [시키군 가와니시초 도인]

나라현 시키군(磯城郡) 가와니시초(川西町) 도인(唐院)에 있는 분구 길이 200m의 전방후원분이다. 나라분지 중앙의 야마토가와(大和川) 강의 지류인 데라가와(寺川) 강·아스카가(飛鳥川) 강이 합류하는 표고 40m부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에도(江戸)시대부터 소화(昭和) 시작 무렵 사이에 본 고분의 유물이 채집되었는데 진석(石)·기석(奇石) 수집가였던 기노우치세키테(木内石亭)가 저술한 『운곤지(雲根志)』에 그 기재가 있고, 본 박물관 외에 주변의 고민가(旧家), 동경국립박물관, 천리대학 부속천리참고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드 영 미술관 등에도 과거에 고분에서 출토된 팔찌모양(腕輪) 석제품이나 구슬류 등이 수장·보관되어 있다.

후원부의 매장시설은 수혈식석실로 추정되고 그 천정석으로 추정되는 다쓰야마이시(龍山石)제 가공석재가 본 고분의 바로 서쪽에 있는 히메쿠와(比売久波) 신사나 가와니시초(川西町)의 공공시설, 고민가 등에서 확인된다.

발굴조사는 1988년에 제방(外堤)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1995년의 제1차 조사부터 2009년 제13차 조사까지 14년간 나라현립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와 가와니시초가 함께 실시하였다.

1996년도의 제2차 조사에서는 전방후원분에서 점토곽이 확인되었다. 점토곽은 길이 10.5m, 폭 3.4m의 묘광 안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구축되었다. 그 규모는 전체 길이 8.5m, 폭 약 2m이다. 길이 7.5m의 금송제 활죽형(割竹形)목관을 중앙에 안치하고 점토를 2번에 걸쳐 덮고 있다. 관 안에는 피장자가 안치되었던 부분에 수은주를 뿌렸고 머리 부근에서는 청동거울(銅鏡) 3매, 석제합〔石製合子〕 3점, 대형 대롱옥 모양 석제품 5점, 흉부 부근에서는 목걸이로 보이는 대롱옥(管玉), 손목 부근에서는 대롱옥·둥근구슬(丸玉)을 연결한 팔찌(腕輪)가 출토되었고 쇠칼〔鐵製刀子〕 4점과 빗〔豎櫛〕도 부장되어 있었다.

또 차륜석(車輪石) 80점, 돌팔찌〔石釧〕 32점, 팽이형 석제품〔楸形石〕 21점으로 함께 133점의 팔찌모양(腕輪形) 석제품이 피복점토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관 위나 피복점토에서는 쇠칼〔鐵小刀〕 2점, 쇠검〔鐵劍〕 5점 및 함께 2500점을 넘는 구슬류와 기러기발 모양(琴柱形) 석제품도 출토되었다. 이것들은 원래 연결돼 있던 것을 끊어서 여기저기 뿌려놓은 상태였다. 점토곽 출토품은 1998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부장품에 무기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체부 피장자가 여성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후원부와 전방부의 중간에 매장시설이 1기 더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상면에서 범위를 확인한 것뿐이지만 낫〔鎌〕·손칼〔刀子〕 등 활석제 모조품과 쇠도끼〔鐵斧〕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분구 조사에서는 3단으로 축조된 분구, 각 단의 경사면에 이어진 이음돌〔葺石〕, 단축 평탄면(테라스) 중앙에 원통형 하니와를 촘촘하게 줄지어 놓은 하니와 열, 동서의 잘록한 부분의 양쪽 후원부 쪽에 부설된 평면삼각형의 조출부〔造出部:고분에 붙어있는 반원형 또는 방형 단상으로 전방후원분의 경우, 주로 원부와 방부가 결합되는 부분에 있다〕 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잘록한 부분에서는 목제품이나 바구니〔籠〕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축조연대는 4세기 말엽, 전기에서 중기로 가는 과도기의 대표적인 대형 전방후원분이고 나라분지 동남부의 오야마토(オオヤマト) 고분군의 수장 계보로 이어진다는 견해와 가즈라키(葛城) 지역의 수장 계보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있다.